

장만채 교육감,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지난 3년 성과와 향후 전남교육발전방향 제시
작은 학교살리기와 기숙형 중학교 의미 혼선 안타까움 강조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장만채)은 1일 주민직선 초대(16대)장만채 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와 함께 향후 전남교육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장교육감은 “남은 임기동안 전남교육의 핵심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독서 토론 수업 강화, 고교 교육력 제고, 무상 의무교육, 교육복지와 함께 시설이나 기자재 등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교육감 취임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최초의 주민 직선교육감이라는 점이며, 둘째는 ‘실용적 진보’를 교육행정의 기조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장만채 교육감은 취임 당시 전남교육의 해법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 ▲평등한 교육복지 실현,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이 그것이며, 이러한 의지는 40개의 공약사업 추진으로 구체화되었다.

장교육감 취임 3주년을 맞이한 지금 전라남도교육청은 전남교육 전반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변화와 혁신의 단초를 열었으며, 전남교육의 체질 개선과 체계 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주민 직선 초대 장만채 교육감을 통해 전남교육의 첨예 상황을 희망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지향점을 제시했다.

그 첫째로 학생과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전원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여 학생 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교직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일 전남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의 주요성과와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질 높은 수업혁신 방안 마련, 교원 행정업무경감 추진, 학생교육 중심 조직 개편 등으로 학생과 학교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행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둘째로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교육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소통의 창구, 교육감 신문고 운영으로 교육주체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반부패 청렴문화를 선도했으며, 현장 속으로,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로 도민과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교육문화를 창출하여 ‘함께 하는 전남교육’을 실현하였다. 또한 주민이 추천하는 교육장공모제 운영과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 운영, 지자체와 연계·협력 시스템 구축 등으로 주민과 참여, 변화와 혁신, 소통과 협력, 청렴과 신뢰, 학생과 현장, 비전과 미래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였다.

셋째로 평등과 존중을 실현하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공동체 인권 조례 제정 추진으로 교육에 참여

상급식 전면화로 2013년 현재 초·중·고 무상급식학교 비율이 95%로 전국 평균 72.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태이며, 체험학습비·수련활동비·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 학교 운영지원비 지원과 학습준비를 구입비 확대 지원으로 한부모의 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과 농어촌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농어촌 고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고등학교 육성 등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농어촌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학교 내 비정규직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고용안정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넷째로 창의와 인성이 조화되는

하는 주체들 모두가 인권을 누리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새로운 학교 모델인 ‘무지개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창의적 사고력과 의사소통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수업 활성화, 인성중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추진, 학생중심 진로교육 강화에 집중하였다.

다섯째로 전남교육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변화된 미래사회에 살아갈 전남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20 전남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장만채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감은 “지난 3년 동안 학생 중심의 교육, 현장 위주의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남교육을 종체적으로 진단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모든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밝혔다.

박상웅 부장 psw10@hanmail.net

(2면으로 이어짐)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또

마음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는
목포공공도서관



목포공공도서관 ‘미래창조과학부 시범운영기관 선정’

목포해양과학 무한상상실 구축을 통한 창의력·상상력 키우기…전국 6개 기관 8천만원 지원받아

목포공공도서관(관장 이한근)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개 모집한 ‘2013년 무한상상실 시범운영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과학기술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활발히 창출되어 R&D 및 창업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활용 될 수 있도록 국가 창의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관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이용 안내

구 분	이 용 시 간		비 고
	하절기(3월~10월)	동절기(11월~2월)	
정 보 복 사 실 열 람 실	07:00 ~ 22:00	08:00 ~ 22:00	• 정기휴관 -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 일요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관)
총 합 자료 실	평 일 09:00 ~ 22:00 토·일 09:00 ~ 17:00		• 임시휴관 - 특별한 사유로 관장이 지정한 날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다문화자료실 간행물자료실	평 일 09:00 ~ 18:00 토·일 09:00 ~ 17:00		

회원 가입

- 대 상 : 전라남도 지역 주민 누구나
- 대 출 도 서 : 1인 7책 10일(1회 7일 연장 가능)
- 구 비 서 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진 1매
- 발 금 장 소 : 정보봉사실(1층)
- 반납일면기 :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
- 문 의 : 정보봉사실(☎ 270-3800)

전자도서관 안내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전자책도서관 / 오디오북 / 사이버강좌 클릭
→ ID, PW 입력

• 회원증이 있는 경우

- ID : 도서관회원증 번호(“ML”로 시작하는 번호)
- PW : 도서관회원증 발급 당시 입력된 PW
(초기 상태는 전화번호 뒷 4자리)

• 회원증이 없는 경우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전자책도서관 / 오디오북 / 사이버강좌 클릭

※ 시청자료 관외대출 안내 ※

- 대출점수 및 기간 : 1인 1점 (10일)
- 대 상 : 중학생 이상
- 유의점 : 본인확인과 등급에 따른 대출 가능
- 문 의 : 디지털자료실(☎ 270-3845)

초대 시

배추, 그녀



박경자

1톤 트럭에 실려 가면서도
몸을 덮은 담요 틈새로
엉덩이 살짝 드러내 보인다
양 다문 초록치마
속, 감춘 허벅지가 차못 부풀어 있다

여린 흙살에 몸 맡기고
칠월 백중 지나 둉짓달에 들기까지
부지런히 단물 길어 올리며
곰삭은 햇빛 차근차근 몸 갈피에 쟁겨 놓았으리

사내의 거친 손에 안겨
트럭에 납치되어 가면서도
그녀,

아사삭아사삭 자지리지게 웃는다

노란 속곳까지 쟁겨 입은

꼭꼭 여며두었던 순정한 저 몸피도
하룻밤 소금물에 푸르르 녹아버리겠지

아직도 넉살좋게

뽀야니 살 오른 엉덩이 드러내놓고
초겨울 바람숨 가쁘게 들이마시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박경자 시집 <오래 빠온 고요>,
2010 현대시 시인선103.

박경자 시인

고구려대학 겸임교수
시인 (필명: 박경)
메일: luvpoem@hanmail.net
블로그: blog.daum.net/luvpoem
2005년 <시로여는 세상> 등단

시집 <오래 빠온 고요> 외

한국문협회원 / 한국아동문학회
이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고구려대학 겸임교수.

교육장 직선제·단위학교 학교장 책임제 운영 필요

<1면에서 이어짐>

장교육감은 이어 “주어진 임기 동안 회망을 꿈꾸며 생동하는 전남교육 실현과 농어촌교육에 희망을 주는 ‘농어촌 교육발전특별법’ 제정 추진에 도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지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독서·토론수업 강화와 고교 교육역 제고로 질 높은 학교교육을 이루어내고, 중단 없는 개혁 추진으로 전남교육의 발전적인 변화를 이루겠으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무상의무교육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교육감은 “장치원이 교육감 선출방식과 관련된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직선제, 공동등록제, 임명제, 러닝레이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직선제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면서 “오히려 교육장까지 직선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교육감은 “학교의 특성화와 단위학교 책임 경영을 위해 학교장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이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를 비롯해 무상의무교육 실현, 농어촌 방과후학교 강사 지원, 농어촌 고교 경쟁력 강화, 무지개 학교 운영 등을 지난 3년간의 10대 성과로 제시했다.

특히, 장교육감은 ▲전남미래형 특성화학교 설립 ▲학교 비정규직 근무여건 개선 ▲교육감 신문고 설치·운영 ▲주민주권교육장 공모제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지난 1일에는 도교육청 5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간 교육감으로 있는 동안 교육감직선제가 전남 만의 특색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처럼 교육장, 심지어 교장으로까지 직선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또 ‘대학총장과 교육감 자리중 어느쪽이 좋은 것 같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장직위는 자유스럽긴 하지만 예산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교육감은 영역이 넓고 민원이 많지만 정책이 바로 바로 일선 현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보람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장교육감은 “교육감이 정부와 정치권, 주민들간 연결고리이나 교육장과 교장은 자율권을 가지고 학교단위에서 시행권을 지닌 직책인 만큼 직접 선출하는 방안이 비롭직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전교조전남지부 등 시민사회단체가 천막농성을

1

[포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2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3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4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5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6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7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8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9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4]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5]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6]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7]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8]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09]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10]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11]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12]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포113] 2014학년도 입시 특징 분석

기 고

미래를 향한 전남교육의 재도약을 기대하며…



문덕근

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장

전남교육의 미래인 학생들의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새로운 제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중심의 교육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놀이는 개개인의 자발성을 중시한다. 기존의 교육체계는 많은 교과목을 많은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에 획일적으로 가르쳐야 하므로 개인의 자발성보다는 일정 목적 달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은 두통과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학생들에게 '놀 틈, 놀 터, 놀 둘무'가 있는 놀이 중심의 교육활동을 추구하는 학교가 늘어나야 한다.

둘째, 의·식·주생활을 소중히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교육은 '지적 학습'에 치우쳐 정말 중요한 '삶의 과제'를 놓치고 있다. 삶과 교육의 기초인 일상 생활, 의·식·주와 대화·소통, 사고연습으로서의 글쓰기, 가정과 학교의 연계교육이 요청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식·주민이 우리를 살리고 현실적인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셋째, 목적의식 교육 즉, 진로교

육이 중시되어야 한다. '무엇이 나의 소명인지? 세상을 위해 무엇에 공헌해야 하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와 같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기본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어린 시절의 손 씻기는 청결을 선호하는 감각을 길러준다. 청결한 습관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 법이며, 이러한 습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 정신적인 면으로 확장되어 청렴, 온후함, 좋은 성품을 끌어들이게 그들만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편의성을 지향하는 외부 수주의 교육 프로그램 공급 형태로는 산적해 있는 수많은 학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학생들의 꿈과 끼를 길

여 줄 수 있도록 법국민적 차원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더불어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남교육의 변화와 도약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전남교육'을 교육지 표로 삼아 '더불어 배우며 미래를 일구는 인간 육성'을 실현해가고자 노력한 초심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그들만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새로운 장간을 앞둔 전라교육신문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교육현장을 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른 사고를 통해 정도를 행보하며 힘, 路, 思路, 想의 길을 여는 교육계의 길잡이가 되어 주길 간절히 바란다.

기 고

교육과 복지에 예산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진보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장

김용태

에게는 10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현 법 정신을 광주에서부터 구현해내고 있다고 김용태 평가한다. 무상급식은 더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또, 희망교실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을 배정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되었다.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받는 희망교실 학급 수만 해도 무려 1500여 개에 이른다.

이전 교육청에서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교육과 학생들의 복지에 거액을 집행하고도 교육청과 314개 학교가 아무런 이상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전 교육청이 빙만한 예산 운영을 했다는 이야기이거나, 예산이 줄줄 새던 것을 진보교육감 시기에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렴한 교육계

자연스럽게 청렴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스승의 날 무렵이면 광주 경제를 풍靡 시키는 주범으로 광주교육청이 지목되기도 하였다.

백화점 매출액이 떨어지는 것을 두고 광주교육청의 청렴정책을 탓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다. 청렴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학부모에게 학교 문턱을 낮추는 효과도 크다. 학교문턱이 낮아지면 학부모는 교사와 자연스런 학생 상담을 하게 될 것이며, 소통이 국대화 되어 교육력은 높아지는 효과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원보호조례 그리고 학교자치조례 등 민주적

조례 3종 세트가 마련되어 민주적 학교운영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광주라는 민주인권문화도시에서 나 가능한 일이라고 보지만, 진보적 교육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무용지물이리라.

임을 위한 행진곡 파동에서 보듯이 보수정권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때 광주시교육청에서는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교육하라는 계기교육방침을 내린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광주시와 광주시 교육청이 하나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시민적인 열망을 모아냈다. 중앙정부를 보수정권이 집권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으면, 민주수호는 가능하다는 것을 광주시와 함께 온 나라에 증명해 주었다.

교육관료 일색의 교육 권력이 평교사 출신의 시민에게 넘어가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지라 안팎으로 말이 많았다.

민주·인권 이야기하다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 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었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족 않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허튼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으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입시 환경에서 빛을 발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교육감의 안정적인 리더쉽에서 나온 '참교육'이 점점 환한 빛을 날 만 남았다. 좌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 고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교육현장 만들어 주시길…



김순창

전라남도학원연합회 회장

많은 부모와 아이가 갈등을 겪는다. 교사와 아이도 마찬가지다. 이유가 뭘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대로는 진로 교육은 커녕 제대로 된 관계 형성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밀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이에게 삼 선생님은 그의 저서 '청춘의 커리큘럼'을

통해 "교육아 사기 좀 그만 쳐라. 학교 교육이 청년들에게 절실했던 세상의 문제를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위로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주장하며 통렬한 반성과 자괴감으로 글을 냅니다.

사교육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동의하며 자성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국은 펫이나 살기 힘든 사회다. 삶의 지표와 관련된 수많은 통계가 이를 입증한다. 자살률은 세계최고인 반면 출산율은 최저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화려한 스펙을 자랑 하지만 청년 실업률은 최악이다. 그러다보니 교육열풍이 아니라 진학 열풍이 몰아친다. 어른들이 착각하는 게 있다. 아이들의 무기력은 문제의 결과일 뿐이다. 뭔가를 시도했다가 실패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학습한 것이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그간 역

동적으로 전남 교육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이에 장 교육감에게 당부 드리고 싶다. 지금보다 더 혁신적인 교육 현장을 만들어 줄 것을 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무지개 학교를 확장해 다양한 대안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전남 지역은 농어촌학교가 많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의 교육을 실현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시대는 혁신을 요구한다. 혁신(?) 창의적 교육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해도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모두가 판·검사, 의사라면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그러므로甲과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를 전남 교육의 수장인 장 교육감이 만들어야 한다. 취임 3주년 축하에 앞서 행복한 전남 교육을 위하여 장만재 교육감의 지도력을 기대한다.

예산은 교육과 복지에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쓰는다. 인식이 광주 교육계를 마침내 지배하게 되었다. 중학생들에게 15만 원의 수학 여행비를 주고 있으며, 초등학생

교육관료 일색의 교육 권력이 평교사 출신의 시민에게 넘어가는 이전에 없었던 일이 발생한지라 안팎으로 말이 많았다.

민주·인권 이야기하다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 사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세력도 있었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만족 않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허튼 기대는 보기 좋게 무너졌으며,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을 중시하는 진보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새로운 입시 환경에서 빛을 발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교육

감의 안정적인 리더쉽에서 나온 '참교육'이 점점 환한 빛을 날 일만 남았다. 좌우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원보호조례 그리고 학교자치조례 등 민주적

A world of Succulents
Woori Farms



우리원예농원

대표 김현철

광주광역시 남구 지석동 418-15

Mobile : 010-9706-1681

Home : 062)363-6962

E-mail : ddd1972@hanmail.net

인터넷에서

www.WooriFarms.co.kr

를 검색하세요!



■ 지역교육지원청을 찾아서 – 순천교육지원청

“학생들이 행복한 명품순천교육”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 등 특색있는 교육행정 눈길



신 경 수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수)은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희망! 순천교육'을 기치로 교육기록과 함께 하는 순천교육을 위한 지원행정에 몰입하고 있다.

순천은 전통적인 교육도시로 「2013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개최를 통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육이 멋지게 어우러져 명품 순천교육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효체험을 통한 바른 인성교육으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 폭력없는 多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맞춤형 학력 UP! 프로젝트, ▲「독서·토론」미래의 꿈날개 ▲ 팔마정신을 계승한 스마트 행정구현 ▲ 감성중심의 문화예술교육 등의 역점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튼튼한 교육행정의 기반 위에 “명품! 순천교육”의 미래를 위한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다.

1. 폭력없는 多 행복한 학교 만들기

순천교육지원청은 폭력없는 모두 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다방면의 교육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孝가 모든 교육의 근본인을 강조하며 孝문화 정착과 효행이 꽂히는 교육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순천향교에서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된 춘계 석전대제(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에서 지내는 큰제사가 있었으며, 순천의 유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경수 순천교육 지원청 교육장이 초헌관으로 현례를 봉행하며 공자의 뜻을 기리고, 효와 예절교육을 중시하는 순천 교육과의 연계 기반을 다졌다. 순천교육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효와 예절교육을 학교 현장에 접목시켜 모든 교육활동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강화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교사, 학생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는 순천경찰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 각 유관기관과 업무협력(MOU)의 공조체제를 갖춤으로써 순천교육지원청 역점과제인 ‘폭력 없는 多 행복한 학교 만들기’와 연계된 실질적인 예방지도를 펼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와 사안대처를 위한 학교장의 역량강화와 학교폭력예방과 균절을 위



한 적극적 마인드 제고를 위해, 순천관내 초·중학교 6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마련했다.

언제든지 옆에 두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함으로써 절차 미숙으로 인한 학교교육력 낭비를 막고자 「학교폭력 사안처리 14단계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설명을 덧붙인 활용설명서, 그리고 학교폭력관련 각종 양식모음을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 등 4가지를 한 블록으로 제공하여 학교에서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했다.

순천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초·중·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로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주제로 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만족도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단위학교의 Wee클래스 기능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운영체제 내실화를 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Wee프로젝트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두다 행복한 순천교육을 지향하는 순천영재들은 5월25일(토),26일(일) 양일간 초·중 206명의 학생이 동천에서 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재미있는 과학!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과학재능 기부 행사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생태체험박람회에 학생들이 동참하여 서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영재학생들의 우수한 과학적 재능을 일반인들에게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영재교육원에서 배운 지식을 재능으로 키워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이 행사에 참여한 순천영재교육원 학생들은 앞으로도 재능기부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모두다 행복한 사회 만들기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 맞춤형 학력 UP! 프로젝트 실현

순천교육지원청은 「단 한 명도 끌까지! 맞춤형 학력 UP! 프로젝트」 전개로 기초·기본학력 정착을 위한 학생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활동과

학력책임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부진아의 단계별 부진요소와 학습 의외 요인을 체계적 진단을 통해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학습 부진아 5-STEP 진단체제는 1STEP의 교과학습진단평가와 2STEP의 기초학습진단평가를 실시하고 3STEP의 기초학습 부진요소를 진단하며, 4STEP 사전상담 및 진단, 5STEP 정서행동 심리를 진단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플랫폼과 연계하여 치유하는 맞춤형 학력 UP 프로젝트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대학생의 교육기부를 활용한 「대학생 코칭단」 운영으로 1:1 학습코칭과 기초학습 부진 보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력 증진에 힘쓰고 있다.

과학부문에서는 지난 제35회 전라남도 학생과학발明품 경진대회에서는 금상 3명, 은상 3명, 동상 6명, 장려상 6명 총 18명이 입상하여 2013 발명우수지역 교육청에 선정 됐다.

학생들에게 과학발명 활동을 통하여 창의력을 계발하고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기르기 위해 시행된 이번 행사에서 생활과학 I II, 학습용품, 자원재 활용 등 전종목 입상하였으며, 특히 생활과학분야 2팀과 자원재 활용분야 1팀은 금상을 획득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또한 전라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13 전남청소년 과학탐구대회에서 금상 5팀, 은상 6팀, 동상 4팀, 장려상 8팀이 수상하는 평가를 이뤄 우수교육청에 선정되었으며, 5개 종목 중 과학미술, 전자통신, 항공우주, 탐구토론 등 4개 종목(5개팀)은 금상을 수상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아울러 7월 서울코엑스에서 개최될 「2013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텁피언 대회」에도 전남대표로 출전하는 4개 팀이 모두 순천영재교육원 출신으로 순천이 과학 최강임을 증명했다.

3. 「독서·토론」미래의 꿈날개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은 창의력, 문제 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력이며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교육의 핵심에는 독서가 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간의 창조적 능력 개발과 자기주도적인 학

습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독서·토론교육은 교육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전라남도 교육청 역점과제와 연계하여 「독서·토론 미래의 꿈날개」라는 역점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과정 속에서의 독서·토론 활동을 전개하

고자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독서·토론 수업의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비움과 쉽고 나눔으로 새로운 힘을 얻고, 독서·토론 수업에 대한 목마름도 시원함으로 채워보자. 독서·토론 수업 콘서트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는 초대장을 보내 희망하는 초·중 교원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힐링 독서·토론 선생님 수업 콘서트」를 개최하여 「마음열기」「수학과 모둠토론」「독서후 나눔 수업」「모둠 프로젝트 토론 수업」「사회·과학 교과독서·토론수업」「전체 독서·토론 수업 발표회」 등으로 교과마다의 독서·토론 수업에 대해 고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독서·토론 교육이 자연스럽게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박 2일간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캠프」를 기획하고, 지역의 도서관과 함께 「고전읽기 교사동아리」 등을 운영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4. 팔마정신 계승 스마트 행정

순천은 고려시대 최석 순천부사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하여 「팔마」라는 단어를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과 친환경 봉사를 상징한 순천의 얼굴처럼 사용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은 전 직원의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부패행위 퇴출 의지를 다짐하는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친화적 연고·운정주의 문화를 극복하고 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청

렴교육, 각종 연수시 청렴관련 홍보 및 교육, 학교의 각종 계약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부패관련 제보에 대한 조사 등 주기적인 교육과 함께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One-stop 두레기동대를 운영하며 기동대원 24명을 3분임으로 조직하여 수복전정, 운동장 배수로 청소, 운동기구 도색 등 학교 현장의 어려운 일을 품앗이 형태로 해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내에는 직원간의 소통과 친목도모를 위해 「야호 마운틴」,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시네마인」, 「기아타이거즈를 사랑하는 사람들」 등 4개의 동아리가 조직·운영되어 동료애와 신비로운 직장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미술과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동아리는 미술도구를 처음 접해 보는 왕초보 회원들이 걸음 마로 시작한 인돌화와 정돌화 작품들을 완성시켜서 8월 중에는 「갤러리 청」에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 1번지

순천교육지원청은 교육부지정 2013 종합예술교육선도도정으로 선정되어 감성중심 문화예술교육의 선도적인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내에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 청」은 교직원뿐만 아니라 전문 작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어 작가에게는 전시의 기회를, 내방객에게는 문화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활력 넘치는 문화예술 공간이 되고 있다.

작가 한민영의 작품 21점은 지난 3월 순천교육지원청에 전시되어 많은 내방객에게 선보인 후 순천비봉초등학교를 비롯한 6교에 이동 순회전시와 함께 작가의 만남 시간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예술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종례 작가의 「인두화」 17작품 역시 「갤러리 청」에서 전시 후 희망하는 4교에 이동 순회전시되었으며, 학교의 희망에 따라 인두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또한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축하와 함께 성공을 기원하는 작가 손차영의 초대전 작품 26점은 순천교육지원청의 「갤러리 청」 전시 후 순천승주중학교 외 2교 순회이동 전시 중이다.

현재, 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유은주 작가의 「꽃과 풍경이 있는 이야기 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유은주 작가의 작품 28점은 순천교육지원청의 「갤러리 청」 전시 후 순천신흥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순회이동 전시되어 문화예술의 중심 순천의 학생과 교직원의 감성을 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순천교육지원청은 「갤러리 청」 외에 학생오케스트라, 예술동아리, 학생뮤지컬 등의 종합예술교육 운영을 위해 지역의 예술문화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종합예술활동 여건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순천교육공동체의 문화적 감성을 높여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예술문화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다양한 장르의 종합예술을 향유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면 순천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윤락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모두가 행복한 순천교육을 꽂고우게 될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되새기며, 순천교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교육기족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고객감동교육행정을 펼쳐가겠다.”는 순천교육지원청의 애심한 교육지원행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과를 기대한다.



■ 탐방 –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전남 과학 교육의 힘찬 비상

융합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



오민재
전라남도과학교육원 원장

전라남도과학교육원(원장 오민재)은 전라남도교육청 산하의 과학교육 전문 기관으로 ‘융합적 사고를 가진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을 목표로 흥미롭고 신나는 과학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전라남도과학교육원은 학생들을 위한 탐구능력 신장과 탐구·실험 중심의 기초 과학교육 지원, 최신 과학교육 정보 제공 및 교실 수업 지원 사업,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험연구 및 연수활동 지원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또한 미래대비 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첨단 과학탐구체험시설 확충과 고객 감동을 위한 폐쇄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과학교육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라남도 직속기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과학 교육 발전을 앞장서고 있다.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연구와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생 교육과 과학교육원 지원은 물론 과학체험실, 컴퓨터실, 발명교육센터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탐방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4D 입체 과학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영상체험실을 새롭게 갖추었다.

또한 4월에는 8억원의 예산으로 4층에 천문관을 개관하여 천체부영실, 슬라이딩 돔 보조관 측실과 천문교실에서는 주관측실과 500mm반사망원경을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원격 제어시스템을 갖춘 후남 최고시설의 천문·우주과학교육 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을 찾아 지원하는 교육용 이동식 망원경 6대를 완비하여 천문·우주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고취시키고 우주를 향한 도전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시설은 천문·우주 현상을 체험하고 우주에 대한 도전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천체관측활동인 ‘예술과 함께하는 별누리 천체관측활동’과 희망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별을 찾아 떠나는 천체관측활동’은 미래를 향해 발돋움하는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의 마음도 과학의 꿈으로 가득 채워주고 있다.

기초과학관 생명과학관, 4D 영상체험실, 첨단 기초과학실, 유아탐구학습실, 옥외학습장, 천문관 등 탐구학습관을 연중 개방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 신장과 기초 과학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학교 단위의 학생 체험학습 및 주말 가족 단위 체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이 많은 전남의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교 학생에게 기초 과학 탐구·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과학 실험 재료와 장비를

갖춘 이동과학차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꿈을 키우는 이동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발명교육센터는 발명의식 고취 및 발명 마인드를 제고하고, 발명 꿈나무의 조기 발굴과 양성 위해 ‘발명영재단’과 생활과 교육과정 속의 발명 및 탐구체험활동을 체험하기 위한 ‘1일 발명교실’, ‘학부모 발명교실’, ‘발명영재학급’ 등 발명교육 프로그램이 학생과 학부모의 열띤 참여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토요과학체험교실은 과학교육원 역점사업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매주 토요일에 희망 학교 및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아 5개의 프로그램을 농산어촌 및 교육소외계층에 기초 과학실험·탐구·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애 증진 및 창의·인성 함양과 과학문화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탐구·체험 교실’은 과학교육원에서 탐구·체험 및 과학 공작 활동 등의 내용으로 운영하고, 농산어촌 학교를 방문하여 운영하는 ‘찾아가는 토요과학체험 교실’과 호남원 예고와 연계하여 제빵·제과, 원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감성을 체험하는 STEAM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Fun & Feel 자연관찰탐사교실’은 가족 단위 생태탐사와 지질 탐사를 내용으로 영광원전과 고창읍성에서 과학을 우리 문화 및 역사와 함께 체험하여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프로그램이며, ‘과학과 예술이 만나는 창의 캠프’는 상반기에 여수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과 MOU를 맺어 실습선인 ‘동백호’와 엑스포공원, 오동동 일대에서 1박2일 동안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탐구실험 부스 운영, 자연생태 탐사, 관현악, 과학마술 등 예술과 함께하는 캠프, 천체 관측 활동 등 다채롭게 내용으로 성황리에 운영하였다.

이러한 토요과학체험교실 프로그램은 날로 인기가 더해져 모든 프로그램에서 그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과학 대중화의 현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일에서 일으로 알려지면서 신청자가 폭주하고,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한 문의가 있다.

전남과학교육소식지를 연 2회 발간하여 전남의 과학교육 소식 및 최신 과학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교실 수업 지원 사업으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내의 기초과학 학습자료, 탐구학습관의 탐구학습을 돋는 탐구학습지, 천체관측 학습자료 및 이동과학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과학 실험 기자재의 대여 및 불버록, 이끼 등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배양하여 희망하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등 탐구·실험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도서벽지 지역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과학교육원의 시험실과 첨단기자재 및 탐구학습관, 천체학습시설을 활용하여 밀도 높은 과학 수업과 탐구활동 및 다양한 캠프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교원에게는 단기 연수와 연구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관을 건립 중이다.

탐구·체험활동 확대를 통한 과학의 대중화 및 창의·인성교육의 중추적 역할과 학교현장의 융합인재 교육(STEAM) 활성화 지원으로 전남 과학 교육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하여 ‘융합인재교육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주구하고 있다.

전라남도과학교육원의 오민재 원장은 현장의 기초과학 교육 및 교원의 과학교육 연구 지원을 위해 과학교육원 전 직원의 힘을 모아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교육 전문기관으로 꿈과 행복을 나누는 ‘찾아오는 과학교육원’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송원여고 ‘제4회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 대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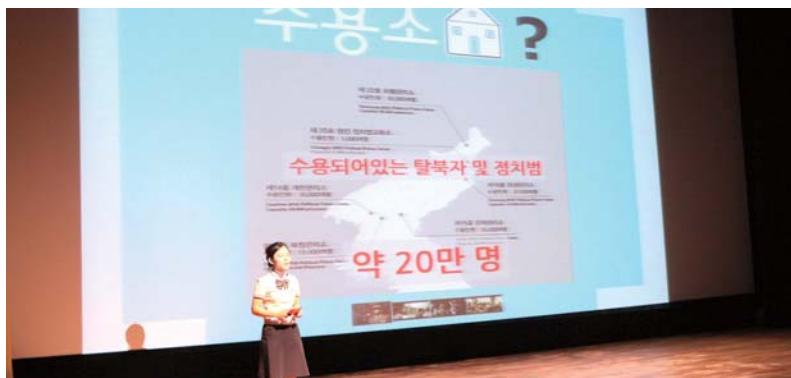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송원여자고등학교(교장 최운수)는 지난 21일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교내 예산을 거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응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3년 자율형 창의경영학교 운영 사업 중 자가주도적인 창의교육의 일환으로 평소 창체활동 중 자율활동 시간을 통해 실시한 ‘나의 생각’ 발표표를 프레젠테이션(PPT)으로 활용한 것이다.

이날 본선대회에 참가한 1학년 학생들은 ▷Animal abuse(동물학대), ▷스마트폰 중독, ▷푸드 마일리지, ▷소시오패스, ▷내 삶의 뿌리를 만들자, ▷우리의 문화유산,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지일까? ▷Poverty(가난), ▷사랑에 대하여, ▷소리 없는 삶의 등을 주제로, 2학년 학생들은 ▷이 시대 최고경영인 세종대왕, ▷Plastic surgery(성형수술), ▷마이크로 섹션, ▷칭찬의 역효과, ▷세계의 이색적인 직업, ▷탈북민의 아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SNS 중독 등의 다양한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였다.

최운수 교장은 “요즘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의사소통하는데 익숙한 학생들이 ‘나의 생각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깊이 있게 전달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창의적인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배양하고, 자신감



을 당당한 발표 능력을 길러 향후 입학사정관 전형 및 대입면접에서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PT하여 관중들의 시

선을 끈 한은선(1학년) 학생은 “요사이 학생들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서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쳐다보기 바빠요 여러 친구들에게 이로 인한 시간

낭비의 심각성을 느끼게 하고 자기 할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자기주도적 능력을 키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가진 생각을

다른 친구들과 소통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꼈어요.”라고 말했다.

작년부터 3회의 출전 경험이 있는 정가연(2학년) 학생은 “작년에 참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탁월한 경영인의 면모를 보여준 세종대왕을 주제로 준비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서 반성할 점들을 생각해 보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다’는 주제로 PT에 참여한 박성은(2학년) 학생도 “작년에 친구들이 나의 생각 PT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올해는 꼭 참가하고 싶었어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생각에 걱정이 있었지만 막상 발표하고 나니, 앞으로는 대중들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라며 흐뭇해했다.

또한 송원여고는 특색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자율형 창의경영학교를 운영 중이며 특히 매일 아침 ‘사제동행 아침 30분 독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책 읽기 습관을 기르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독서활동을 창체활동의 자율체제로 선정된 자기주도학습과 나의 생각 PT 대회로 연계하여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광주전산고, ‘학과 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취업 100%의 취업 명문 특성화고를 향해 나아가다”



이영주
광주전산고등학교 교장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광주전산고등학교(교장 이영주)는 1954년 개교한 우리 지역의 유일한 공립 상업계 특성화 고등학교이다. 광주전산고등학교는 “특성화고의 경쟁력은 취업률이다.”라는 모토로 전교직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학생들의 진로 지도, 취업 마인드 제고,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올해 조 “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학교의 특성화 목표인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관련 핵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새롭게 태어날 준비에 분주하다.

향후 광주전산고등학교는 광주경영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 현 ‘정보통신과(3반), 세무행정과(2반), 디지털콘텐츠과(2반)’의 학과 체제에서 ‘금융서비스과(2반), 회계서비스과(2반), 비서사무서비스과(2반)’의 학과 체제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우수 신입생을 적극 유치하고,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2015년에는 취업률 95%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광주전산고등학교는 “2013년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중소기업청 지원금 1억 7천만 원과 광주광역시교육청 대응투자 방식

의 3천만 원을 합해 매년 2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5년에 걸쳐 총 10억 원을 지원 받아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서비스 분야 관련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맞춤형 6단계 프로젝트 진로프로그램 운영

광주전산고등학교에서는 특성화고마인드 제고를 위해 맞춤형 6단계 프로젝트 진로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입학부터 졸업까지 6학기에 걸쳐 진행되는데, 먼저 중소기업 산업체 CEO 특강 등 다양한 진로 특강과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결정된 진로에 맞추어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기소개서 · 이력서 작성 대회, 모의면접대회, 취업포트폴리오 대회, 취업 골든벨, 산업 · 정보실 무경진대회 등 다양한 교내 경진 대회를 통해 취업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이러한 단계들을 토대로 3학년 1학기에는 산학맞춤반을 운영하여 기업 체와 학생이 일대일로 협약을 맺는다. 학생은 현장 실습 전 미리 현장에 필요한 실무를 익히고 난 후 현장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학생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

광주전산고등학교는 현장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금융서비스과, 회계서비스과, 비서사무서비스과’로 학과체제를 개편을 완성하였다. 또한 ‘수업 속 취업 5분’ 프로그램을 모든 교과에서 운영하여 학생의 취업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산업현장 주도형 수업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산업체의 인사 담당자가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현장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컨설팅함으로써 교사의 교수학습 역량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맞춤 실무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자격취득을 위한 방과후 교육 및 동아리 활성화

광주전산고등학교는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과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반, 전산회계반, 금융 자격증반, 공무원 시험 대비반 등을 비롯하여 삼설 동아리로 운영되는 기능장 동아리, 학교 기업 JSI 시스템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기르는 데 교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그 결과 광주전산고등학교는 지난해 많은 성과

를 이루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애니메이션 부분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대한민국 좋은 학교 선정’, ‘광주 교육 정보대상’ 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또 전국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서 경제 골든벨 부분 금상을 비롯하여, 제9회 특성화고교 생 사장되기 창업대회 우수상을 수상을 하였다. 또 광주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서 경제 골든벨 금상, 취업포트폴리오 동상, 회계실무 동상, 쇼핑몰디자인 동상, 창업아이템 동상을 수상하였다.

2013년에는 광주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서 경제골든벨과 ERP 부분에서 금상, 쇼핑몰디자인 은상, 창업아이템 동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9월에 열리는 전국상업정보실무능력경진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하게 된다. 또 광주기능장경기대회에서 애니메이션 부분은메달, 웨디자인 부분 동메달을 수상하여, 이를 역시 역시 광주광역시 대표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박신용 부장 psw110@hanmail.net



문화예술로 감성이 하나되는 한 · 중 수교 21주년 맞이 청소년 예술제

한 · 중 청소년 문화교류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사랑합창단과 예술영재 교육원 단원들은 지난 6월 29일(토) 한 · 중 수교 21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한 중국 남경시 해바라기 앤젤예술단과 함께 「한 · 중 청소년 문화교류 예술제」를 개최하였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다사랑합창단의 합창(보리발등 6곡)과, 예술영재교육원의 현악4중주 및 피아노duo의 연주를 선보였으며, 해바라기 앤젤 예술단은 아침노을 등 다수의 곡을 합창하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합창단원들은 “문화교류를 통해서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동안의 실력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중국 친구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고 그동안 몰라서 못했던 타문화에 대해 알게 되어 너무나 좋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장(정공섭)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중 문화교류의 예술 체험 행사의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연 및 학생참여 마당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사랑합창단은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에서 운영중이며,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다.(문의: 380-8853-4)



다사랑합창단 공연



현악4중주 공연



남경 해바라기 합창단 공연



한 · 중 청소년 공연 참가자 단체사진

